

“요즘 전국의 산악행사에 참석해보면 대구는 화끈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. 한차례 선거 후유증을 두고 하는 이야긴데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.”

지난 1월 18일 대구광역시산악연맹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선출된 김종길(54세)씨. 그동안 정치인이 회장을 맡아 연임해오다, 96년 대구, 경북산악연맹이 분리되면서 산악인이 연임하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지만 선거전은 정치인 못지않게 화끈했다.

“진취적인 연맹의 모습 되찾겠다”

글 사진 | 최원식 대구 주재기자

“대선, 총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습 관행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”며 씩씩함을 내비쳤다.

선거직전 인터넷에 ‘집단구타’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와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수사과정에서 ‘혐의 없음’이 밝혀졌다. 그러나 상처받은 속마음은 아직 아물지 않은 듯 했다.

예전, 지금의 원로로 대접받는 선배들이 산에 다닐 때와 지금 후배들의 등반사조가 같을 수 없다. 현 시대에 맞게 흘러가야한다. 지난 2년의 임기동안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대구 산악계가 다시 옛 명성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걸림이 많았다. 원로는 후견인이고, 전 인차역할을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가 때로는 고문관역할을 하는 선배도 적지 않았다.

“진취적인 연맹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옥석을 가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데...”

김 회장은 우선 선후배 산악인간 화합과 신뢰 회복에 역점을 둔다는 입장이다. 먼저 내실을 다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. 지난 임기동안 ‘대구마칼루원정대’를 성공으로 이끌었고, 대구연맹 자체의 ‘청소년오지환경탐사대’를 꾸려 성공리에 마친 김 회장은 이번 2013년에 2차로 ‘청소년오지환경탐사대’를 이어가고, 내년에는 히말라야에 다시 한 번 대구산악연맹기를 꽂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

지난해 ‘대구시연맹회장배 볼더링대회’를 신설했고, ‘대구시교육감배 등반대회’를 주관, 재능기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산악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, 앞으로도 연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소년이나 산악인에게 행정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센터 같은 연맹을 만들고 싶고, 각종 위원회 활성화에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.

“4년의 임기동안 주변의 휘둘림에 발목 잡혀 퇴보하는 연맹이기 보다는 어느 누가 회장을 맡더라도 소신껏 현안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. 가맹단체 회원들과 함께 내실을 튼튼하게 다져 전국 17개 시·도 연맹 중 최고의 연맹, 화끈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.”

